

중증의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에 이환된 쌍태아 임신에서 임신 19²주에 Radio-frequency Ablation을 이용한 성공적인 선택적 유산 1예

장은미, 박미혜, 김영주, 안정자, 김종일, 전선희

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

단일 용모막성 쌍태는 전체 쌍태임신의 1% 미만의 빈도를 나타내며 이런 단일 용모막성 쌍태의 약 10-17%에서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이 보고되고 있다.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은 태반 혈관 문합을 통한 혈류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높은 주산기 이환율 및 사망률을 나타내며 특히 임신 초기에 발생할수록 예후는 더욱 더 치명적이다.

저자들은 조기 중증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에 이환된 쌍태임신에서 임신 19²주에 Radio-frequency Ablation을 이용하여 donor twin을 선택적으로 유산시킨 후 35주에 recipient twin을 건강하게 분만한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.